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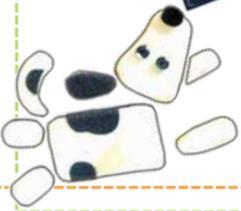
# 폐품이 선물하는 '즐거운 상상'



◀ 고근호·주홍씨 부부는 딸 원경이와 아들 건희에게 정크아트 그림책 시리즈를 시작했다.

정크아트 그림책 '고물자전거' 시리즈 시작한 부부미술인 고근호·주홍씨

“폐품에 예술 입혀 새로운 가치 발견  
어른에게도 몽클함 선물하고 싶어”  
6개월에 한권씩 총 5권 펴내기로



“이게 뭐야?”  
어느날 4살난 딸 아이가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몰았다. 길가에 버려진 고물이었다. 미술인 부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버려진 것들과 대화를 해보기도 하고, 아리저리 머리를 굴러보기도 했다. 아파트 분리수거함에 버려진 세발자전거를 고쳐서 색칠했고, 바퀴 달린 침대를 만들어 딸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크리스마스 때는 고물들을 해체하고 조립해 시스모양의 탈 것을 만들어 선물했다.

고근호·주홍씨 부부는 그렇게 폐품들을 이용해 형태를 만들고 색을 칠했다. 아스팔트 위에 납작하게 찌그리진 강릉, 녹슬고 구부러진 못, 잘려나간 전깃줄, 나무토막, 병뚜껑, 비닐봉투 등이 부부의 발길을 붙잡았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하나하나 주위 모으다 보니 작업실 한쪽에 폐품들 자리가 생겼다.

그러던 차에 딸 원경이에게 정크아트를 이용해 만든 그림책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난 2005년 펴낸 책이 '고물자전거'와 '아기고양이 미로'였다. 주홍씨가 글을 쓰고, 고근호씨가 폐품들로 그림을 그렸다. 두 책 모두 그해 KBS유치원하나들셋의 'TV가 읽어주는 책'에 선정되기도 했다.

부부가 10년만에 정크아트 그림책 '고물자전거'(단비)를 새로 펴냈다. 부부는 '고물자전거'를 시작으로 앞으로 6개월에 1권씩 모두 5권의 정크아트 그림책을 펴낼 계획이다. 앞으로 나올 4권의 책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테마는 '즐거운 상상'이다. 즐거운 상상은 부부의 결혼식 주제이기도 하고 현대미술가인 고근호 작가의 작업 테마이기도 하다. 부부의 인생 철학이기도 하다.

“어렵게 살때 정크 아트를 했어요. 그때 큰 아이가 4살이었는데, 딸이 자라면서도 물질로 삶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동화책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세상을 당장 바꿀수는 없지만 아픔을 함께 공유하면 새로운 세상과 마법 같은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죠.”(주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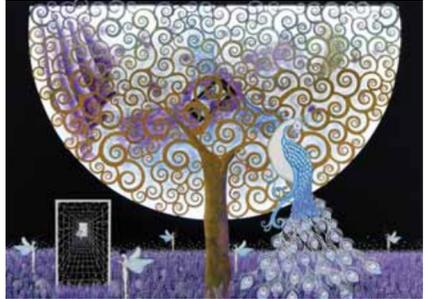
'고물자전거'는 힘차게 페달을 밟아보고 싶은 소녀와 고물 자전거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하지만 소녀는 고물 자전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약하고, 고물 자전거도 누구를 태울 수 없을 만큼 낡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고물 자전거를 멋진 휠체어로 만들어 오게 되면서 소녀도 고물 자전거도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

“쓸모없고 버려지고 제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된 낡은 것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버려진 물건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담았죠.”(고근호)

이 책을 쓰고, 그리기 위해 부부는 생선상자를 주워 솔로 문질러 씻고, 말린 다음 다시 분해해서 나무판을 새로 짜는 작업을 반복했다. 색을 칠해 배경을 만들고, 주위 은 강릉, 병뚜껑, 나무토막, 못 등을 이용해 이야기를 만들고 붙였다. 덕분에 작업실에는 한동안 생선 버린내가 배기도 했다.

“아직도 그림책을 처음 펴낼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아이들과 또 버려진 물건들과 즐겁게 대화를 하면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어른들이 읽어도 가슴이 몽클한 그런 그림책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즐거운 상상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말이죠. 이제 저희 작업실을 떠나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면 합니다.”(주홍)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밤의 시간'

夜~

## 김진화 '꿈꾸는 창'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LED조명으로 수놓은 별빛과 여신, 천사 그리고 기호처럼 나열되는 사물들. 이상한 조합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전관에서 열리고 있는 청년작가 초대 '김진화 꿈꾸는 창'전에서 만난 김진화 작가의 작품은 한편의 그림자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밤으로의 여행'은 어두운 밤 공간의 유리창을 통해 보여주는 실루엣에서 착안한 설치작품이다. 사각의 한지 프레임 뒷면에 포맥스로 만든 형상들과 LED 조명이 감춰져 있다. 시간차를 두고 깜박이는 패널은 밤하늘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작가는 매혹적인 밤의 창을 통해 사람들이 순수한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 가기를 꿈꾸며 이 작품을 만들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초창기 회화 작품을 비롯해 드로잉, 설치, 입체, LED 등 작가의 작품세계를 한눈에 읽을 수 있다. 작품들은 인간의 내면심리, 현대인의 모습에 대한 비판, 인간의 잠재 욕구 등을 화두로 삼았다.

미국 뉴욕 프랫인스티튜트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김 작가는 제16회 광주미술상, 하정웅 청년작가상, 제10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613-5394.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音~

## 광주 5개구 연합합창제 11일 광산문화회관

광주 시내 5개 구청은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96년 동구 합창단이 발족한 데 이어 1999년에 남구합창단과 서구여성합창단이 신설됐고 지난 2000년에는 북구합창단과 광산구합창단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광주시 5개구 합창연합회(회장 정유하)를 결성, 해마다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주고 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광주시 5개구 연합합창제가 오는 11일 오후 7시 광산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김동환의 '바람은 남풍' 김소월의 '뭇잎어' '엄마야 누나야' 등 시에 멜로디를 부친 가곡과 '날리리 맘보' '무조건' 등 가요를 비롯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공연의 대미는 정유하 광산구합창단 지휘자와 함께하는 5개 합창단의 합동공연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장식한다.

10일까지 광산구 홈페이지(gwangsan.go.kr) '새소식'란에 신청하면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다. 문의 062-960-82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유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사리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이태리가구**   **명품소파**   **더롭침대**   **가구빌딩**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